

2022 사순절 시리즈 <천로역정 함께 읽기> 7강

“네 마음을 지켜라”

- 잠 21:1-12 -

1. 소망 씨와의 동행



믿음 씨가 죽고, 허영의 시장에서 도망친 크리스천은 혼자
가 아니었다. 소망(Hopeful, 본래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크
리스천과 믿음 씨의 고난을 견디는 믿음을 보고 감동해서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이란 남자와 함께 했다. 소망
은 순례를 마칠 때까지 동행이 되기로 약속하고 형제의 언
약을 맺은 뒤에 여행에 합류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음으
로 진리를 선포하자 곧 다른 사람이 그 재에서 일어나 순례
의 길을 가는 내내 크리스천의 동반자가 되었다. 소망은 적
절한 때가 되면 허영의 시장에서도 많은 이들이 뒤따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에게 말했
다.

2. 이기심(By-ends)과의 만남

제 친척은 변절 경(Lord Turn-about), 기회주의 경(Lord Turn-Server), 미사여구 경
(Lord Fair Speech), 능글 씨(Mr. Smooth-man), 양다리 씨(Mr. Facing-both-ways),
무관심 씨(Mr. Anything),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인 두 개의 혀 씨(Mr. Two-tongue)는
우리 외삼촌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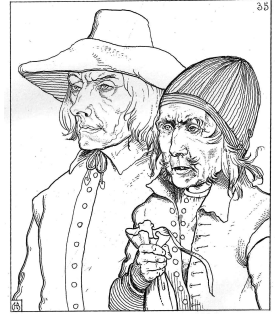
(크리스천이 왜 이름이 이기심이냐고 묻자)

그런 악평을 자초할 만한 일을 한 게 있다면, 기회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재빨리
파악하는 재주를 써서 세월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행운을 얻었다는
점뿐이요. 남들 눈에는 그것도 죄인지 모르겠지만 난 축복이라고 믿소.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기심과 함께 걷는 이들은 세상집착 씨(Mr. Hold-the-world), 돈사랑 씨(Mr. Money-Love), 노랭이 씨(Mr. Save-all)이었는데 이기심과는 이미 잘 아는 사이였다. 모두 탐욕마을(The county of Coveting) 출신으로 무조건뺏어(Love-gain)이란 학교에 다니면서 빼앗아 선생(Mr. Gripe-man) 밑에서 공부한 동문들이었다.



신앙의 유익을 묻는 이기심의 질문에 대한 돈사랑씨의 답변

첫째, 하나님의 섭리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잡고 싶어 하는 건 눈썹만큼도 문제될 게 없네 ... 둘째,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욕구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해 삶의 모든 측면이 발전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셋째,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이전의 관점과 원칙들을 수정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증거일세.

3. 데마(Demas)와의 만남

(딤후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 저쪽에 가면 은광을 파헤치며 보물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조금만 힘을 써도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겁니다.

소망: (슬깃해서) 한 번 가봅시다!

크리스천: 이곳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 다들 금은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속절없이 죽어간다더군.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지체하게 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다네.

데마: 이쪽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을까요?

크리스천: 잘 들으시오! 당신은 주님의 길을 휘방하는 원수요. 거룩한 길에서 도망갔다가 우리 임금님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과가 있소 ... 맥이 하는 것은 죄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4.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래된 기념물에 이르렀다. 워낙 이상해서 조형물에 눈길이 갔다. 그때 소망이 기둥 꼭대기에 적힌 낯선 글귀를 찾아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제서야 순례자는 소금기둥 위에 있는 형상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보다 굳어버린 롯의 아내임을 깨달았다. “소망 형제, 이건 아주 시의적절한 장면일세. 테마가 은광에 들어가서 한뿔 잡으려고 손짓하던 돈 언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유적이 서 있다는 점을 꼼꼼히 생각해보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저 꼴이 됐을 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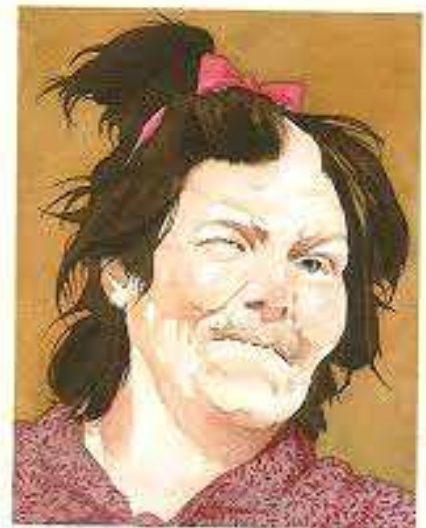
5. 절망 거인(Giant Despair)을 만나다



크리스천은 소망이 꺼렸으나 자신의 고집으로 곁길초원(By-path Meadow)에 빠진다. 하지만 이 길로 조금 더 가게 되니 갑자기 천둥번개와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물이 길 위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렘31:21) ... 둘은 몹시 지쳐 멀지 않는 의심의 성(Doubting Castle)에 들어갔는데 그곳 영주는 절망 거인(Giant Despair)였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갑절로 큰 슬픔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에 빠진 것은 모두 자기의 고집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움메기죽어(Diffidence)였다. 잠자리에 들자 거인의 아내는 그들을 일단 무자비하게 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고통을 주라고 설득하였다 ... 거기에는 밧줄과 칼, 그리고 독약이 든 병이 한 개 들어있었는데 이는 모두 자살을 부추기는 도구들이었다. 극심한 배고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인하여 드디어 크리스천이 자루 속에서 독이 든 병을 꺼내드는 순간 소망이 소리쳤다



절망에 빠진 크리스천에게 소망이 말한다.

소망: 참으로 우리의 현재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을 살해해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인의 권유대로 자신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 형제님,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봅시다.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맙시다.

(단 2:12)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단 2: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단 2: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이 가까워올때까지 계속했다. 해 뜰 무렵이 다 돼갈 때쯤, 갑자기 크리스천이 기가 막힌다는 듯 외쳤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Promise)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카맣게 잊고 있었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란 문을 죄다 열수 있는데 말일세!

기도는 ()을 물리친다.

기도는 ()나게 한다.

기도는 ()을 열어준다.